광기(光氣)와 광기(狂氣)의 차이

(사무엘상 22:1~23)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3.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광기(光氣)와 광기(狂氣)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광기(光氣)와 광기(狂氣)의 차이'

한 아가씨가 의대를 다니는 남학생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앞날이 창창한 이 의대생을 국회의원이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아가씨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의 이름이 이 광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가씨가 머무는 정신병원으로 아가씨를 버렸던 의대생이 정신과 의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극단 새벽의 신입단원들의 워크숍 공연입니다. 제목은 "돌아이, 또라이"이고 부제는 "미친 사람들의 미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이 광녀와 그에 맞장구를 쳐주는 입원 18년째의 베테랑 환자인 장성녀가 온갖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은 미치지 않은 이야기이고, 정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이야말로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친 사람들의 모습을 띄고서 연극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 치고 자기를 미쳤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다 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만 가질 수 있는 판단입니다.

즉 지금 내가 나를 볼 때에 아무리 정상으로 생각해도 다른 시선이 볼 때에는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지 나를 보는 판단이 미친 것인지를 따지다보면 또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볼 때에는 미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정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소신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타인에게는 미친 짓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신은 타인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안에서 결정한 일을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정상으로 봐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 말로 소신이 아니라 미친 것입니다. 소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정상인데 왜 못 받아 들이냐며 아우성을 치면 이것은 소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정상이고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을 알아야 정상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 분명한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로 내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정상으로 보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침에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친다.'는 것은 인간사회 안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선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상식과 논리와 관습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판단은 그 사회 영역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인데, 다른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상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미치면 반드시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발붙이고 살 곳이 없게 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 미침의 사회학적인 의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여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여 겨우 목숨을 구해내는 비참한 모습이 다윗의 현실인 것 같았으나, 시34: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미친 척(狂)한 그 행동을 빛(光)으로 연결시키는데 이게 특이합니다.
다윗이 미친 행동을 한 것은 사울 왕의 통치영역에서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통치영역에서나 다윗이 존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논리를 공유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상징하는데, 다윗은 그 광기(狂氣)의 상태를 빛이 나는 광기(光氣)의 상태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곳은 유대 땅이지

만 인간사회의 영역 바깥입니다. '온 다윗의 집안의 그리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사울이 통치하는 인간 세상으로부터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에서는 빚진 자가 도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빚이 청산되고 땅은 돌아오기 때문인데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광기(狂氣)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며 힘을 쏟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커에 의하면 고전주의 시대의 광인들은 빈민이나 범죄자나 부랑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환난 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그 사회에서 거점 확보가 불가능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400명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을 계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들을 대동하였다고 보면 가구당 4명씩만 잡아도 1,500~2,000명가량이 되는데 이들은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다윗은 현재 자기의 몸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세상적인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다윗의 영적 동료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신정적 왕정국가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윗에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들은 다윗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하나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절대 저항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정책을 정했기에,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유대 땅에서 거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피신만 다니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앞으로 다윗이 사울과 맞서 싸워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광기(光氣)를 보고 찾아온 것인데 이러한 모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동네의 귀신들린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뒤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데 요즘 같으면 대박사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대표하는 자가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마8:19~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나 서기관은 작게나마 이 세상에서 거점을 가진 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자신들의 거점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서기관은 랍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랍비가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출세가도가 결정되므로, 예수님을 좇으려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서

기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서기관이 이 땅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좇으려 함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뒤에 풍랑만난 배 위에서 주무십니다. '인자는 땅에 거처가 없다'고 하셨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거처로서 하늘빛의 기운인 광기(光氣)가 예수님을 감쌌던 것인데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십니다.
눅14:25~26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십니다.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이 세상의 거점입니다. 이 거점으로부터 시작된 내 생애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좇는 행위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6: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땅의 거점을 늘리려는 의도를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이러한 의도가 뜻하는 바가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놉에 있는 제사장에게 도망하여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엑이 보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를 사울에게 알려 제사장들 85명과 가족들을 몰살시키는데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존재는 상징적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을 죽인 사울의 특별한 행동은 보편적인 영적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이유는, 이 땅에서 거점으로 가진 자기의 왕위를 견고한 터전위에 세우려는 노력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 땅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지경을 넓히려는 모든 노력은 하늘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행위요, 진정한 미친 짓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다윗의 미친 짓을 통해서 정말로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이유는 사울이 미쳐있었고 블레셋의 아기스가 미쳐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미친 자들 앞에서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의 현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미친 짓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기쁨을 얻겠다고 하며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갖고 마음을 하늘에 드려서 하늘빛의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사울처럼 경쟁자들을 이기면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모든 생각이 미친 생각이고 미친 행동으로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모든 제자들이 동요할 때에 그들은 미쳐있었고 오히려 주무시는 예수님이 정상이셨습니다. 땅에 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 빛의 기운(光氣)으로 인해서 풍랑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풍랑을 첫 번째 환경으로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것이야 말로 미친 짓(狂氣)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중한 영적 원리, 영적 원칙, 영적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점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 활동의 거점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자 이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아닌 하늘에 거점을 둔 사람들을 거점 삼으셔서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정적 왕정국가를 건립하시게 됩니다. 다윗왕국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이 다스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땅에 거점을 두지 않고 마음을 하늘로 보낸 자들을 거점 삼으시고 이루어나가시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광기(狂氣) 죽이기입니다. 우리의 유전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생각하게 하고 노력하게 합니다. 경쟁자를 무찌르게 하고 이 땅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이끌어 가는데 이것이 미친 짓입니다. 땅에는 우리의 거점이 없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땅에서 얻을 나의 성공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을 쥐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성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일 뿐 나의 성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마음은 사실은 가장 보편적이고 끈질긴 미치광이 처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감추어져 있는 나의 미치광이(狂氣) 근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늘빛(光氣)에 휩싸여 사는 하늘 선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